

[주식시황]

고승희  
 02-3774-1871  
 seunghee.ko@miraeeasset.com

# Liquidity Tracker

## 위험 자산 유입 기초 속 정치적,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계

- 선진국 주식형 펀드 +170.4억 달러, 신흥국 주식형 펀드 -28.0억 달러
- 선진국 채권형 펀드 +82.3억 달러, 신흥국 채권형 펀드 +9.4억 달러

### 신흥국 주식 1주 만에 순유출 전환. 선진국 주식은 18년 3월 이후 최대 순유입

금주(3/7~3/13)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28.0억 달러 순유출(AUM 대비 -0.23%). 1주 만에 순유출 전환. 18년 7월 이후 최대 규모 자금 이탈. 신흥아시아(-22.8억 달러), GEM(-2.0억 달러), EMEA(-1.7억 달러), 라틴아메리카(-1.5억 달러) 등 모든 지역에서 순유출

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170.4억 달러 순유입(AUM 대비 +0.18%). 1주 만에 순유입 전환. 18년 3월 이후 최대 규모 자금 유입. 북미에서 251.8억 달러 순유입(AUM 대비 +0.47%). 18년 3월 이후 최대. 반면 유럽(-45.7억달러), Global(-23.9억 달러), 선진아시아(-11.8억 달러)는 순유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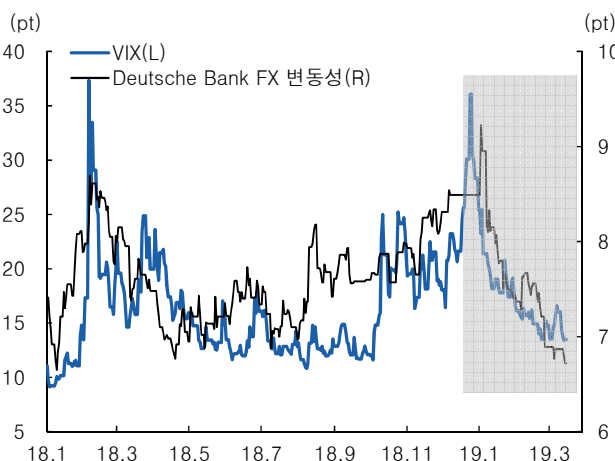
### 위험 자산 유입 기초 속 정치적,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

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이탈에도 순유입 기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.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정책 기초 속 낮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고, 브렉시트 이슈도 노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달러 강세가 진정되었기 때문. 또한 VIX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 지표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위험 자산에 우호적인 모습. 여기에 더해 3/15일 리커창 총리가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

3월 FOMC는 Dovish한 모습이 재확인되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. 다만,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.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일 물러 특검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. 트럼프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. 북한 관련 불확실성도 경계. 3/15일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'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'고 밝혔고, 향후 김정은의 공식성명이 발표할 것이라고 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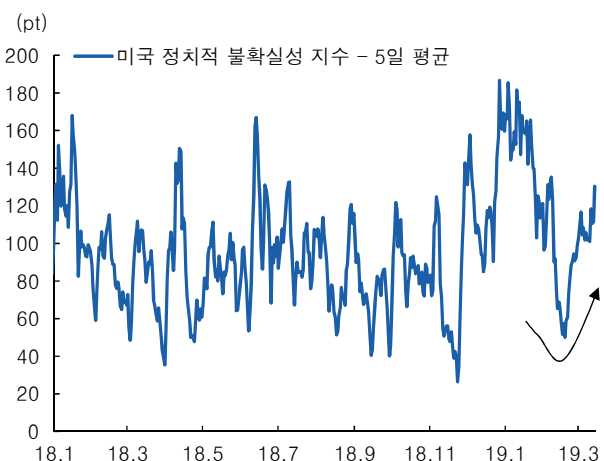
주요국의 경기 부양적인 정책 기초와 낮은 금리를 고려할 때, 주식으로의 양호한 수급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. 다만, 국내 외국인 수급은 북한 이슈에 보다 민감하고, MSCI EM 내 비중 축소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

그림 1. 달러 강세 진정 속 낮은 수준의 금융 시장 변동성 지표

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2. 정치적,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은 경계



자료: EPU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Weekly Key Table

표 1. 글로벌 주식형 펀드 현황

(백만달러)

		1주간 유입강도(%)			4주간 순유입		연간 순유입액			총자산		
		3/7~3/13	2/28~3/6	2/21~2/27	순유입액	유입강도	2019	2018	2017	2019	2018	2017
신 홍 국	GEM	-0.03	0.08	0.21	2,042	0.31	18,705	12,216	55,414	664,928	580,602	663,001
	아시아(일본제외)	-0.48	0.00	-0.34	-4,386	-0.93	-3,165	42,349	8,017	469,727	419,170	452,548
	라틴아메리카	-0.39	0.04	0.21	-158	-0.40	439	2,524	3,958	39,450	34,157	34,115
	EMEA	-0.53	-0.27	-0.13	-479	-1.49	-427	-2,088	-2,362	31,589	28,959	43,825
	신홍국(전체)	-0.23	0.04	-0.01	-2,982	-0.25	15,553	55,001	65,027	1,205,695	1,062,888	1,193,490
선 진 국	북미	0.47	-0.11	0.15	23,310	0.43	-16,963	-34,190	3,291	5,440,970	4,715,789	5,200,119
	유럽	-0.36	-0.24	-0.32	-15,668	-1.22	-30,431	-75,440	36,108	1,272,537	1,178,005	1,410,737
	아시아 태평양	-0.19	-0.31	-0.16	-5,145	-0.83	1,759	65,435	45,891	617,267	560,386	565,990
	글로벌	-0.10	0.01	-0.12	-7,811	-0.32	-16,087	45,938	144,165	2,397,795	2,120,661	2,300,687
	선진국(전체)	0.18	-0.11	0.00	-5,314	-0.05	-61,722	1,743	229,455	9,728,569	8,574,840	9,477,533
한국관련 펀드 합계		-0.15	-0.03	-0.09	-15,302	-0.37	1,213	165,938	253,487	4,149,717	3,680,820	3,982,226

주1: 한국관련 펀드 = GEM + 아시아(일본제외) + 아시아태평양 + 글로벌

주2: 1주간 유입강도 = 1주간 유입액 / 총자산

자료: EPFR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표 2. 글로벌 채권형 펀드 현황

(백만달러)

		1주간 유입강도(%)			4주간 순유입		연간 순유입액			총자산		
		3/7~3/13	2/28~3/6	2/21~2/27	순유입액	유입강도	2019	2018	2017	2019	2018	2017
신 홍 국	GEM	0.20	0.42	0.42	4,016	1.19	17,736	-313	63,202	340,982	309,214	314,441
	아시아(일본제외)	0.10	0.02	-0.43	-740	-0.75	-275	-10,167	2,734	97,538	92,223	97,036
	라틴아메리카	0.83	0.81	0.57	274	1.74	444	-1,121	2,058	16,068	14,077	17,987
	EMEA	0.29	0.32	-0.24	1	0.01	119	-654	459	11,212	10,233	12,450
	신홍국(전체)	0.20	0.35	0.23	3,552	0.77	18,024	-12,255	68,454	465,801	425,747	441,914
선 진 국	북미	0.29	0.10	0.27	21,297	0.76	46,005	63,067	196,237	2,832,254	2,695,706	2,557,582
	유럽	-0.09	0.34	0.18	5,076	0.59	3,099	-36,319	18,465	860,903	842,372	862,171
	아시아 태평양	-0.12	0.02	0.07	-18	-0.04	-372	-3,985	-674	42,363	42,222	40,169
	글로벌	0.10	0.16	-0.40	-909	-0.10	-965	-39,304	63,518	951,302	918,479	849,987
	선진국(전체)	0.18	0.15	0.12	25,446	0.55	47,766	-16,542	277,546	4,686,823	4,498,780	4,309,908
하이일드채권		0.34	-0.11	0.18	2,381	0.50	10,866	-77,810	-16,970	477,874	442,994	547,304
글로벌 MMF		0.04	0.72	-0.01	13,181	0.31	99,666	85,463	145,134	4,318,930	4,201,475	4,066,499

자료: EPFR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표 3. 글로벌 섹터 펀드 현황

(백만달러)

		1주간 유입강도(%)			4주간 순유입		연간 순유입액			총자산		
		3/7~3/13	2/28~3/6	2/21~2/27	순유입액	유입강도	2019	2018	2017	2019	2018	2017
상품/소재		0.11	-0.49	-0.07	-1,466	-0.62	-266	4,546	11,300	234,164	221,970	230,361
소비재		1.02	-0.76	2.35	1,655	2.26	875	3,554	1,600	74,888	65,282	68,875
에너지		-1.09	0.60	-0.13	-1,491	-1.34	-4,493	-10,496	2,452	109,617	99,534	130,706
금융		0.01	0.07	-0.41	-1,520	-1.13	-6,896	-15,688	25,219	132,862	125,265	157,257
헬스케어/바이오		1.22	-0.38	0.49	1,674	1.24	1,605	10,728	-2,669	136,296	115,397	107,164
인프라		0.11	0.13	-0.01	154	0.43	592	-4,620	668	35,967	31,547	38,564
부동산		0.05	0.18	0.09	1,107	0.29	4,426	-14,518	-11,326	388,572	352,649	365,684
테크놀로지		-0.46	0.08	0.76	89	0.05	-2,285	15,065	18,329	175,569	150,279	135,128
통신		6.00	0.84	3.99	1,086	11.84	2,301	3,765	-81	10,253	7,169	3,910
유틸리티		0.37	-0.05	0.37	563	0.99	1,036	-276	280	57,651	50,127	54,161
산업재		3.72	-2.35	-0.10	562	2.03	-658	-2,644	3,142	28,238	24,906	31,966
섹터펀드(전체)		0.20	-0.09	0.27	2,413	0.17	-3,751	-10,583	48,923	1,384,076	1,244,198	1,323,776

자료: EPFR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표 4. 후강통 관련 글로벌 자금흐름 현황

(백만달러)

펀드자금 이동 경로			투자통화	주간유입액					연간유입액
				3/7~3/13	2/28~3/6	2/21~2/27	2/14~2/20	4주 합계	2019
펀드플로우	본토 투자 (A)	홍콩소재 본토투자(A)펀드	RMB	64	107	1	0	173	183
		중국소재 본토투자(A)펀드	RMB	-1,237	-466	-1,497	-345	-3,544	-3,982
		해외소재 본토투자(A)펀드	RMB	-5	3	-16	-2	-21	-11
		A주 유입 합계		-1,177	-356	-1,512	-347	-3,392	-3,810
	홍콩 투자 (H)	홍콩소재 홍콩투자(H)펀드	HKD	-102	-476	83	-129	-623	-1,224
		중국소재 홍콩투자(H)펀드	HKD	6	10	47	10	73	81
		해외소재 홍콩투자(H)펀드	HKD	-1	6	-1	2	6	5
	H주 유입 합계			-96	-460	129	-118	-545	-1,138
	해외소재 중국(A&H)투자펀드		기타	-50	993	642	-31	1,553	6,216
	중국 배분액 총합				-1,324	177	-741	-496	-2,384

자금 이동 경로에 따른 순매수 금액		단위	주간순매수					연간순매수
			3/7~3/13	2/28~3/6	2/21~2/27	2/14~2/20	4주 합계	2019
후강통	후구통(홍콩 → 상해)	백만RMB	-5,404	2,554	6,218	10,089	13,457	58,668
	강구통(상해 → 홍콩)	백만HKD	3,228	5,091	-9,428	-2,924	-4,034	-6,440
선강통	선구통(홍콩 → 심천)	백만RMB	-3,130	10,169	8,252	8,950	24,240	58,456
	강구통(심천 → 홍콩)	백만HKD	-824	2,294	1,812	1,551	4,832	7,796

구분		주간 상승률 (%)					연간상승률 (%)
		3/7~3/13	2/28~3/6	2/21~2/27	2/14~2/20	4주 합계	2019
주요인덱스	MSCI China A index	-2.4	5.0	6.5	1.8	11.1	25.2
	MSCI China H index	-2.6	1.3	2.7	0.5	1.9	14.9
	본토프리미엄(A/H) index	-1.7	1.0	4.0	0.5	3.8	4.5
	선전증시 index	-0.2	7.8	6.4	4.2	19.2	30.7

주1: 본토프리미엄은 주간 MSCI China index 대비 MSCI China A index 상대주가로 도출  
 주2: 중국으로 유입되는 펀드플로우가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지, 심천에 투자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음  
 자료: EPFR, HKEX,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표 5. 이머징 국가별 펀드 현황

(%)

	주식형펀드 1주간 유입강도							
	3/7~3/13	2/28~3/6	2/21~2/27	2/14~2/20	2/7~2/13	1/31~2/6	1/24~1/30	1/17~1/23
중국	-0.28	0.04	-0.17	-0.11	0.10	0.19	0.26	0.16
한국	-0.05	0.06	0.10	-0.03	0.12	0.23	0.29	0.27
브라질	-0.20	0.03	0.08	0.00	0.35	0.52	0.41	0.40
대만	-0.26	-0.06	0.03	-0.10	0.12	0.21	0.31	0.27
남아프리카	-0.08	0.06	0.13	-0.02	0.14	0.38	0.41	0.48
인도	-0.20	0.05	-0.09	-0.07	0.01	0.12	0.25	0.20
러시아	-0.29	-0.16	-0.04	-0.24	0.08	0.35	0.29	0.26
멕시코	0.00	0.15	0.35	-0.27	-0.04	0.30	-0.01	-0.58
말레이시아	-0.13	-0.03	0.15	-0.01	0.24	0.34	0.51	0.52
태국	-0.07	0.08	-0.07	-0.03	0.00	0.12	0.05	0.18
인도네시아	-0.15	0.00	0.10	-0.08	0.22	0.28	0.36	0.40
폴란드	-0.28	-0.04	0.00	-0.02	0.09	0.35	0.18	0.25
칠레	-0.13	-0.07	0.24	-0.12	-0.06	0.37	0.02	0.25
터키	-0.22	-0.10	0.02	-0.46	0.03	0.07	0.22	0.38
콜롬비아	0.01	0.08	0.30	0.13	0.19	0.40	0.12	0.73
필리핀	-0.13	0.02	0.12	-0.01	0.22	0.44	0.41	0.52
페루	0.18	0.08	0.11	0.00	0.20	0.42	0.43	0.42
체코	-0.13	0.04	0.02	-0.06	0.05	0.26	0.18	0.25
헝가리	-0.12	0.02	0.05	-0.02	0.12	0.38	0.34	0.34
이집트	0.22	0.21	0.15	0.03	0.21	0.42	0.44	0.47
그리스	-0.31	0.06	0.20	-0.06	0.06	0.23	0.06	0.19
카타르	-0.08	-0.03	0.07	-0.06	0.16	0.20	0.25	0.43
UAE	-0.09	0.02	0.10	0.01	0.17	0.26	0.38	0.43

자료: EPFR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표 6. 아시아 주요 6개국 외국인 매매 동향

(백만달러)

	1주간 순매수			4주 및 연간 합계		연간 순매수액				
	3/11~3/14	3/4~3/8	2/25~3/1	4주 합계	2019년 (YTD)	2019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
한국	180	-404	-301	77	3,496	3,496	-5,121	5,399	9,496	-3,256
대만	-232	-624	707	610	2,445	2,445	-11,623	4,847	9,979	1,665
인도	1,323	246	1,137	4,543	4,451	4,451	-4,557	8,014	2,903	3,274
태국	-96	-222	-228	-215	-266	-266	-8,913	-795	2,240	-4,372
인도네시아	-159	126	-64	-102	658	658	-3,661	-2,966	1,253	-1,572
필리핀	-8	-6	59	62	489	489	-1,080	1,095	83	-1,194
합계	1,007	-884	1,309	4,975	11,274	11,274	-34,955	15,594	25,954	-5,454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